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강소전 *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 III.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
- IV.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요약

<천지왕본풀이>는 창세신화의 면모를 보이는 본풀이다. 해와 달이 두 개가 있고 인간 세상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을 각각 제자리와 역할에 맞게 정리하고 더 나아가 이승과 저승의 구분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의례적 기능은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 신화적 의미는 신(대별왕, 소별왕)의 탄생과 그 신에 의한 우주의 질서 확립, 인간세상의 차지와 질서정리라는 관점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상관성이다.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의 일부로 행해지는 본풀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베포도업침>이 원래 신화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설명적 교술무가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의례의 제차과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베포도업침>이 원래 신화였는지 처음부터 교술무가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천지자연과 인문사항의 발생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베포도업침>이 있고, 그 중에 '월일광도업'과 관련한 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천지왕본풀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은 <베포도업침>과의 관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질서의 부여자(신들의 탄생)'와 '인간세상의 질서 정리'라는 큰 관점으로 나누었다. '질서의 부여자'라는 틀 속에서는 천지왕과 대소별왕과의 관계를 다루었고, 이때 천지왕의 꿈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형제들의 신이한 능력은 천지왕의 '꿈'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후자인 '인간세상의 질서 정리'에서는 우주적 차원의 질서 확립과 지상의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천지왕과 대소별왕 각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았다. 천지왕은 대·소별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해 월일광 도업이라는 우주적 차원의 질서 확립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소별왕은 월일광 도업 이후에 인세차지 경쟁을 통해 지상의 질서를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이승과 저승의 상황에는 신들의 정체성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어 : 천지왕본풀이, 창세신화, 베포도업침, 신(대별왕, 소별왕)의 탄생, 우주의 질서 확립, 인간세상의 차지와 질서정리, 월일광도업, 천지왕의 꿈

I. 머리말

<천지왕본풀이>는 창세신화(創世神話)라고 분류할 수 있는 본풀이로, 제주도에서 구비전승 되는 본풀이 중에서는 일반신본풀이에 해당한다. <천지왕본풀이>는 해와 달이 두 개가 있고 인간 세상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소위 그것들을 각각 제자리와 역할에 맞게 분리하고 더 나아

가 이승과 저승의 차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간 한국의 창세신화를 다룰 때에는 〈천지왕본풀이〉에 대한 구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그동안 〈천지왕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비문학 분야에서 신화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창세신화적 의미와 여러 가지 신화소에 대해 집중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이것이 여러 나라의 창세신화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비교문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역시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 일월조정, 인세차지경쟁 등의 신화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신화소를 신(대별왕, 소별왕)의 탄생과 그 신에 의한 우주의 질서 확립, 인간세상의 차지와 질서정리라는 관점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하지만 본풀이는 의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제주도의 본풀이는 현재도 전승되는 ‘살아 있는 신화’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천지왕본풀이〉는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이라는 제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베포도업침〉의 내용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가운데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피려는 자료는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과의 상관성이 드러난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기존에 보고된 자료 중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채록된 것은 제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제차적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 채록된 각편 자료는 김현선이 잘 정리해 놓은 결과가 있다. 그는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라는 책에서 한국 전반의 창세신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연구의 하나로 제주도의 창

세신화에 주목하여 대단히 자세한 분석을 한 바 있다. 그는 모두 9편의 제주도 창세신화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¹⁾

이 글에서는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제차적 연관성이 어느 정도라도 드러나 있는 고대중(장주근 채록), 강일생(임석재 채록), 정주병(현용준 채록) 심방의 구송본을 대상으로 살피고자 한다. 고대중과 강일생의 자료는 김현선의 『한국의 창세신화』 자료편을 대상으로 살필 것이다. 그리고 정주병의 자료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현용준 채록본을 가만히 보면 <초감제>는 안사인 심방의 구송내용인데, 유독 <천지왕본풀이>만 정주병의 자료가 덧붙여진 모습이나 일단 이 글에서 검토하기로 한다.²⁾ 이밖에 문무병이 채록해 『제주도큰굿자료』에 수록한 이중춘 심방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다.³⁾ 따라서 이 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편은 모두 4개이다.

1)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89쪽 표 참고. 표에 제시된 자료들은 책의 후반부에 모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제주도 굿에서 초감제는 보통 수심방이 맡아서 한다. 그런데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모두 한다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심방이 차례대로 이어서 하지 그 두 제차를 나누어 다른 심방이 한 제차를 별도로 맡아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용준 채록본에서 초감제는 안사인 심방이 하고, <천지왕본풀이>는 정주병 심방의 자료로 된 것은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현용준은 제차별로 누구의 구송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주병의 본풀이가 왜 안사인의 초감제에 덧붙여 들어갔는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범례(凡例)에서 밝힌 것처럼, 이것도 사전의 구성체계상 타인의 것으로 구성·편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무병은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칠머리당굿보존회, 1998)』에서 <천지왕본풀이>를 수록 보고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이중춘 심방이 구송한 자료가어서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의 제차적 연관성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천지왕본풀이〉 자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본풀이의 형성계통과 더불어 주로 육지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신화적 면모를 살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현용준은 〈천지왕본풀이〉를 통해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을 살펴 이것이 남방문화와의 교류와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즉 제주도 개벽신화의 특징은 天地分離神話와 射陽神話의 결합에 있고, 그 천지분리의 원인은 닭의 울음으로 인한 태양의 출현에 있으며, 사양신화의 요소는 해와 달 두 개씩의 출현과 그 하나씩을 쏘아 떨어뜨리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천지분리의 특징 모티프는 남중국·대만 일대의 것과 친연성이 발견되었고, 사양신화의 특징 모티프는 남중국 연안 대만·동남아 쪽과 연결되는 면이 있으니, 이는 남중국·동지나해 일대의 문화권역에서 흘러 들어와 독자적인 개벽신화로 창출하게 된 것이며, 이 전파에는 쿠로시오(黑潮) 조류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측한다.⁴⁾

한편 서대석은 일단 천지개벽신화라는 용어보다는 창세시조신화라고 치칭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전국에서 조사된 창세관련 신화의 여러 각편에 두루 공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세 차지 경쟁 삽화’이며, 곧 인세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창세시조신화라고 부르고 있다.⁵⁾ 또한 천지개벽, 인간창조, 일월조정, 인세주도권 경쟁, 시조의 출생과정 등 신화소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현용준이 ‘사양(射陽)’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을 두고, 일(日)

4)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제주도연구』 5집, 제주도연구회, 1988, 40~41쪽.

5)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23쪽.

뿐만 아니라 월(月)까지도 조정의 대상임으로 ‘일월조정(日月調定)’이라고 새롭게 부르는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창세신화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한 이가 김현선이다. 그는 『한국의 창세신화』라는 책에서 다른 지역의 자료와 더불어 제주도의 각편들을 광범위하고도 꼼꼼하게 서로 비교하는 신화분석을 했다. 그는 이 중 제주도의 창세신화에 대해서 천지개벽, 수명장자 징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아들의 부친 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 경쟁 등의 신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몇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현용준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화적 측면의 연구, 그 중에서도 신화소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세신화의 내용이 들쭉날쭉한 점이 분명히 있고, 자료도 그리 많지는 않아 이러한 신화소의 분석사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하다. 또한 국내 자료와의 비교에다 여러 주변 나라나 민족들과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연구 측면과는 별도로 창세신화 중 일단 제주의 <천지왕본풀이>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의 상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을 구연하는 과정의 일부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화의 내용도 다분히 <베포도업침> 속의 세부 구연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역할은 <베포도업침>과의 관련을 떠나서 해명될 수 없다.

선행연구 중 제차진행의 측면에서 <천지왕본풀이>가 <베포도업침>의 한 구성요소라는 것에 집중해서 다룬 연구는 별로 없다. 서대석과 김

헌선이 <베포도업침>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막상 <베포도업침>의 의례적 기능은 놓치고 <베포도업침>의 창세신화적 성격과 구연 형태만을 보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대석은 왜 창세신신화는 없어지고 <베포도업침>과 같은 교술무가(敎述巫歌)로 대체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창세신에 대한 숭앙이 퇴조하면서 곳곳에서 창세신에 대한 제차가 없어지자 창세신화도 전승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지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만 창세시조신화의 전승이 활발한 이유를 창세신을 모시는 제차인 《초감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⁶⁾ 한편 김헌선도 창세신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천지개벽이 본디의 신화적 의미를 잃고 설명적 서술로 대체되면서 <베포도업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⁷⁾ 거기에 김헌선의 『한국의 창세신화』에서는 창세신화라는 범주 속에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함께 분석하고 있기에 그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처럼 <베포도업침>의 내용은 본래 설명이 아니고 신화였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제주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관찰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베포도업침>의 내용은 신화의 의미를 상실한 설명적 전락물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베포도업침>은 ‘베포도업을 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 한 부분이 <천지왕본풀이>와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베포도업침>의 내용은 비단 천지개벽만이 아니라 원래

6) 서대석, 위의 논문, 232쪽.

7) 김헌선, 앞의 책, 96쪽, 121~122쪽.

가능처럼 모든 천지자연과 인문발생의 사항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이후 이어지는 <제청도업> 등의 소재차 등과도 일맥상 통하는 제차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대석의 주장처럼 제주도 곳의 《초감제》를 창세신을 모시는 제차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초감제》는 창세와 관련된 신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모든 신을 불러들이는 제차이며, 후반부인 <오리정신청계> 대목에서 그 모든 신들은 저마다 성격별로 분류되어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 있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초감제》라는 제차의 전승력 만을 가지고서 제주도 창세신화의 전승우위를 논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이는 《초감제》에서 행해지는 세부 제차도 다양하고, 청신(請神)의 대상이 비교적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는 일단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베포도업침>과의 상관성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둘 사이의 상관성에 실질적으로 주목한 글로 김현선이 이후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인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⁸⁾가 있다. 여기에서는 보다 앞선 논의가 나타난다. 그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경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식하며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철학적 사유까지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8)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2005, 비교민속학회.

Ⅲ.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

1.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상관성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모두 4편이다. 이들 자료들을 살펴보면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을 구연하는 과정에서 <천지왕본풀이>가 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구연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현용준 채록본을 인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원번호와 진한 글자는 필자 표시).

①**천지혼합(天地混合)으로 제이르자.** 천지혼합을 제일롭긴 천지혼합시 시절(時節), 하늘과 땅이 굽이 엇어 니 귀 즘썩혀어 올 때 천지가 일무공뉘웁데다. 천지가 일무공뉘어올 때 계벽시(開闢時) 도업(都業)이 뉘웁데다.

②**계벽시 도업으로 제이르자.**

계벽시 시절, 천과이(天開)는 즈(子)호고 지벽(地闢)에는 축(丑會)호야 인개(人開)는 인이(人會) 도업(都業)호야, 하늘 머리 올립고 땅의 머리 올려 올 때 상갑즈년(上甲子年) 갑즈월 갑즈일 갑즈시(甲子時)에 하늘 땅 새(間) 띄징꺄찌 굽이 나웁데다. 상경 계문 도업(三更開門都業) 제일롭긴, 요 하늘엔 하늘로 청이슬(靑露) 땅으론 흑이슬(黑露) 중앙(中央) 황이슬(黃露) 느려 합수(合水) 뉘 뉘 때 ③**천지인왕(天地人皇) 도업으로 제이르자.**

인왕(人皇) 도업 제이르니, 하늘엔 동(東)으론 청구름(靑雲) 서으로 백구름(白雲) 낭(南)그론 적구름 북으론 흑구름 중앙(中央) 황구름 뜨고 올 때에 ④**수성계문(水星開門) 도업 제이르자.** 요 하늘엔 천왕독(天皇鷄)은 목을 들러, 지왕독(地皇鷄)은 늘꺄(翎) 치와, 인왕독(人皇鷄) 출릴(尾) 칠 때, 갑을동방(甲乙東方) 니엄 들러 먼동 금동이 터 올 때 ⑤**동성계문(東星開門) 도업으로 제이르자.**

동성계문 도업하니, 요 하늘엔 해(太陽)가 먼저 나며 별(星)이 먼저 나옵

데가. 벨이 먼저 나옴데다. 갑을동방(甲乙東方) 동산사별 전오생(牽牛星)이 뜨고, 경진서방(庚辛西方) 서산사별 지네생(織女星)이 뜨고, 남방국(南方國) 노인성(老人星), 해저북방(亥子北方)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 선오성별 도업홀 때 ⑥선오성별 도업으로 제이르자.

선오성별 도업하야 요 하늘엔 낮이는 일광(日光)이 들이 뜨고 밤의는 월광(月光)이 들이 뜰 때, 낮인 만민 백성(萬民百姓) 죽어 죽고, 밤인 만민 백성 곱아 실려 죽을 때, 하늘옥황(玉皇) 천지왕(天地王)이 서이 십지땅 호첩(好妾)을 두어 대별왕도 도업하고 소별왕도 도업하여 백근 쌀(百斤矢)에 백근 활(百斤弓) 아끈 장때 저울려다 백근 쌀 흔대 비비둥둥 저울려 뒤에 오는 일광(日光) 하나(一) 쏘와다 동이와당 진도밭제여, 밤인 월광 하나 쏘와다 서이와당 진도밭제하여, 그 법으로 낮의 일광 하나 생기고 밤의 월광 하나 생겨, 낮의 죽어 죽던 백성(百姓) 밤의 곱아 죽던 백성 살기 편(便)홀 때 ⑦월일광(月日光) 도업(都業)으로 제이르자.

월일광 도업 제이르니, ⑧대별왕도 도업 소별왕도 도업 제이르자. 대소별왕 도업홀 적, 옥황상제(玉皇上帝) 천지왕(天地王)이웨다. ……(중략)…… 저승법을 츠지해야 들어산다. 설운 아시 이승법 마련하던 천지왕 본이웨다. 대소별왕 도업 제이르자.

대별왕 도업 제이르니, ⑨열다섯 십오생인 도업 제이르자. 천왕씨 열 두 양반, 지왕씨 열 혼 양반, 인왕씨 아홉 양반 도업으로 제이르자. 천왕 베포 도업 지왕 베포 도업 인왕 베포 도업 제이르자. 산 베포 물 베포 원 베포 제이르자. 우리 나라 고구려 신 베포 도업 제이르자. 왕이 나사 국입고, 국이 나 왕입네다. 왕 베포 국 베포 도업 제이르자.

제청 도업 제이르자. 제청 도업 제일립긴 제청 도업이 어디며 제청 설유가 어딜러나 호옵거든⁹⁾ (인용자주 : 그 다음은 <날과 국 섬김>으로 이어짐)

현용준이 채록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순서가 <베포도업침> → <천지왕본풀이> → <베포도업침>¹⁰⁾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

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33~43쪽.

다. 따라서 사실상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의 한 부분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베포도업침>의 내용은 천지창조와 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대소별왕 도업, 십오성인 도업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베포도업침>

- ①천지혼합(天地混合)으로 제이르자.
- ②계벽시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③천지인왕(天地人皇)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④수성계문(水星開門) 도업 제이르자.
- ⑤동성계문(東星開門)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⑥선오성별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⑦월일광(月日光) 도업(都業)으로 제이르자.

<천지왕본풀이>

- ⑧대별왕도 도업 소별왕도 도업 제이르자.

<베포도업침>

- ⑨열다섯 십오성인 도업 제이르자. (이하 생략)

즉 ①천지혼합으로 제이르자 → ②계벽시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③천지인왕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④수성계문(水星開門) 도업 제이르자 → ⑤동성계문(東星開門)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⑥선오성별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⑦월일광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⑧대소별왕 도업으로 제이르자 → ⑨열다섯 십오성인 도업으로 제이르자 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10)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는 <천지왕본풀이>가 끝난 뒤 이어지는 부분에 다시 <베포도업침>이라는 구분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연내용상으로 <천지왕본풀이>에 이어 ‘열다섯 십오성인’ 등의 도업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에, 사실 이 부분부터 다시 <베포도업침>이 이어지는 것이다.

순서는 (1)천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개벽하는 상태로의 정리·질서된 상태와 (2)혼합/개벽 도업 → 천지인왕 도업 → 선오성별 도업 → 월일광 도업 → 열다섯 십오생인 도업 등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또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점차 축소·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지자연이 나름대로 질서 있게 하나씩 정리·창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⑦월일광 도업과 관련해 이야기되고 있다. 즉 <베포도업침>에서 ‘월일광’에 대해 대략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월일광’을 정리하고 질서를 부여한 대·소별왕의 신화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세상인 이승과 저승차지의 구별까지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천지왕본풀이>의 구연 뒤에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베포도업의 순서라고 전승된 ⑨열다섯 십오생인 도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형태는 다른 채록본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면상 간단히 옮겨보자. 고대중 구연 장주근 채록본의 <천지 도업>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상략)……

진우이에 별이요 진아랜 細별하니
 三太六星 선牛星 별之都업으로 第一입니다.
 별이나니 寅方으로는 因하여 人間사람이 솟아나고
 丑方으로는 축하니 萬物이 癸酉作하니 萬物이솟아나니
 밤도 왁왁 일목공 낮도 왁왁 일목공
 신更 初更 곱을 모릅대다. 곱믈 때에
 天지王아들이 甲午王께 장개들때 집뿐 謝禮로서
 暉하늘에 해도 하나 들도 하나 내보내젠 하니
 地보王이선 기쁜 생각으로 暉하늘에 해도 둘 내보내고

들도 둘 내보내니 밤이는 人間百姓이 곳아서 죽고
 낮이는 人間百姓이 좃아 죽을 때에
 天지왕아들 大터락大별王 小터락小별王
 ……(이후 천지왕본풀이, 중략)……
 혼하늘 해도 하나 혼하늘 들도 하나 마련흐니
 日光도 都업입내다 月光도 都업입내다
 月日光 都업으로 第一이니
 ……(이후 천지왕본풀이, 중략)……
 天王氏는 열두兩班 열두ㄱ을에 어룬노릇하고,
 地王氏는 열흐兩班 열흐ㄱ을에 어룬노릇하고,
 人王氏는 아홉ㄱ을에 어룬노릇 ्ह읍테다.
 ……(중략)……
 통성 창성 열다섯 시五생人 都업입내다
 ……(하략)……11)

또한 강일생이 구연하고 임석재가 채록한 <베포도업침>에서도 비슷하다. 여기에서는 대별왕이 이미 저승으로 들어선 이후에 소별왕의 부탁에 의해 다시 이승에서 월일광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다른 자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상략)……
 초감제어 연드리로 이십팔숙 성주 성벨도 업 제이르자
 ……(중략)……
 혼 하늘엔 월광도 둘 일광도 둘
 인간백성은 낮이는 좃아죽어 밤에는 얼어 고사 죽어 인간도업 아니로다
 성(姓)은 서(徐)가 이름은 풍성이

11) 김현선, 앞의 책, 415~420쪽 참고.

구상나무 상(上) 가진 올란 옥황데레 흐들 올려
 옥황의 천지와왕 아들이 삼 성제가 솟아진다.
 큰 아들은 대벨왕 셋 아들은 소벨왕 말젓 아들은 돌림 마누라
 ……(하략)……12)

더욱이 이중춘이 구연하고 문무병이 채록한 것에서도 월일광 도업 →
 산 배포 물 배포 도업 → 천지와왕본풀이 → 열다섯 십오생인 도업 등으로
 그 양상은 비슷하다.

……(상략)……
 월광(月光)님도 도업이고, 일광(日光)님도 도업을 제이르난,
 산과 물을 곱갈르난,
 동악산(東岳山)은 서악산(西岳山),
 ……(중략)……
 산(山)과 물이 곱갈라보난 아 산배포 물배포도 도업-
 산배포 도업 물배포 도업허난,
 천지와왕(天地王)은 옥황(玉皇)이고
 지부왕(地府王)은 총명부인(聰明婦人)
 천지와왕이 지부왕에 느려산다.
 ……(이후 천지와왕본풀이, 중략)……
 신도업 제이르난,
 태고라 천양썸(天皇氏) 이목덕(以木德)으로 왕을 허난
 성제(兄弟) 열 둘이 무유유화(無爲而化) 허난
 ……(중략)……
 열다섯 십오생인 도업허난
 천왕배포(天皇配布) 도업
 지왕배포(地皇配布) 도업

12) 김현선, 앞의 책, 421~427쪽 참고.

인왕배포(人皇配布) 도업

……(하략)……¹³⁾

즉 구체적인 순서 자체에는 약간씩의 가감·변동은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베포도업침>에서 천지자연과 인문사항의 발생을 순서 있게 말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특히 ‘월일광도업’과 관련해 종속적으로 <천지왕본풀이>가 구연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내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련과정을 거친 심방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심방들은 <천지왕본풀이>가 <베포도업침>의 월일광도업과 관련해 구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이 월일광도업은 우주의 발생 중에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인간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월일을 조정한 신의 이야기를 특별히 풀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도업의 과정 중에서도 특히 월일광도업과 관련해 본풀이가 행해지는 것은 아마도 인간세상의 조건 형성에 있어 해와 달의 조정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던 인식의 소산인 듯하다.

한편 그동안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자료를 통해 함께 다뤄지던 ‘천지개벽’의 화소는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베포도업침>과 더욱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사실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는 ‘일월조정’, ‘인세차지 경쟁’ 등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수명장자 정치, 아버지 찾기 등의 여러 서사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월일광도업도 분명 천지개벽의 한 요소인 것에는 틀림없으나, 실제적으로 천지개벽의 신화소는 <베포도업침> 속에 있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관계를 잘 살펴본다면 오히려

13)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 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391~397쪽.

천지개벽은 전체적으로 <베포도엮침>에서 구연되는 것이고,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그러한 천지개벽에 하나로 이어지는 일월조정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천지개벽 화소는 <베포도엮침>과 관련짓고, <천지왕본풀이>는 월일광(月日光)의 도엽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포도엮침>은 천지·인문사항의 발생을 말하고, 그 안에서 ‘월일광도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천지왕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천지왕본풀이>의 구연 상황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 곳곳에서 가장 먼저 불려지는 본풀이로 알려져 왔다. 곳의 시작인 《초감제》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큰곳일 경우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초감제》와 각각의 《○○맞이》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큰곳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초감제》는 전체적인 《초감제》를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맞이》에서도 항상 첫머리는 다시 《초감제》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 사실상 《초감제》는 전체적인 《초감제》와 개별적인 맞이의 《초감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천지왕본풀이>는 이들 《초감제》의 <베포도엮침>에서 부르는 것이다.

심방들에게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천지왕본풀이>는 큰곳에서 전체적인 《초감제》와, 《시왕맞이》의 초감제에서 행해진다고 한다. 각각의 제차에서 모두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한번 정도만 구연할 수도 있다.¹⁴⁾ 큰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두 제차에서 <천지왕본풀

14) 예를 들어 『제주도큰곳자료』의 이중춘 심방을 보면 큰곳임에도 전체적인 《초감제》에서가 아니라, 개별 맞이의 하나인 《시왕맞이》의 <초감제>에서 <천지왕본풀이>

이>가 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지왕본풀이>를 구송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태로 바뀌어 가는 상황도 엿보인다.¹⁵⁾ <베포도엮침>만을 행할 뿐, <천지왕본풀이>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베포도엮침>에는 ‘월일광도엮’과 관련해 간략하나마 천지왕과 대별왕·소별왕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방의 구송 능력 여부를 떠나, 굿판의 제차 진행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과 총맹부인이라는 부모 세대와,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자식세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의 천지왕과 지상의 총맹부인이 결연을 맺고, 형제를 낳는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나중에 월일광 도엮을 해낸 후, 각각 이승과 저승을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천지왕본풀이>의 기본 신화 내용을 현용준이 채록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하늘의 천지왕이 꿈을 꾸고 난 후 지상의 총맹부인과 인연을 맺는다.
- 나. 천지왕이 총맹부인과 함께 밥을 먹는 과정에서 수명장자의 악행이 드러난다.
- 다. 천지왕은 악인인 수명장자를 징치해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

를 하고 있다.

15) 필자가 2003년 12월에 조사했던 ‘김윤수 심방댁의 큰굿(수심방 : 양창보)’에서는 전체적인 《초감제》에서만이 아니라, 《시왕맞이》에서도 <천지왕본풀이>를 들을 수 없었다.

- 라. 천지왕은 총맹부인과의 사이에 두 형제를 낳을 것이라 하면서 본메를 주고 하늘로 올라간다.
- 마. 총맹부인이 두 형제를 홀로 키우다, 어느 날 형제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묻는다.
- 바. 형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나 만나지 못한다.
- 사. 이후 형제는 월일을 조정해 인간세상의 혼란을 수습한다.
- 아.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경쟁을 벌여 대별왕은 저승을, 소별왕을 이승을 차지한다.
- 자. 혼란스러운 이승의 법과 맑고 청량한 저승의 법이 정해진다.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천지왕과 대·소별왕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형제들의 탄생과 부친탐색 그리고 월일광도업을 이루어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천지왕과 형제들의 인간세상 질서 확립 부분도 구분할 점이다. 이들 문제를 잘 살핀다면 상호 중층적으로 연결짓는 구조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 질서의 부여자 : 신의 탄생

<천지왕본풀이>에서 월일광도업을 이루어내고 인간세상의 질서를 정리한 주체는 대별왕과 소별왕이다. 이는 본풀이에서만 아니라 <베포도업침>에서도 공통된 사항이다. 천지왕은 이런 대·소별왕이 장차 탄생할 거라는 꿈을 꾸고 지상의 총맹부인과 결연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왕은 질서의 부여자인 신들의 탄생을 주도한 존재이다. 이로 인해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형제가 탄생한다. 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다 어느 날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고 아버지 찾기를 실행한

다. 그 방법은 본메인 ‘꼭씨, 박씨’를 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¹⁶⁾ 그런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입자 없는 용상을 보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만나는 대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부친탐색의 화소는 기존에 수집된 여러 각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화소라고 할 수 있다. 각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두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찾아 만나며, 이후 본메(信標)를 보이고 아들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현용준이 채록한 정주병의 〈천지왕본풀이〉와 문무병이 채록한 이중춘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소별왕이 천지왕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막상 부자상봉의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입자 없는 용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천지왕의 부재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각편에 나타난 부친탐색의 화소 중에서도 약간의 미묘한 편차를 발견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런 점이 별로 부각되지 못했는데, 이 글에서는 현용준 채록본을 중심으로 해서 부친탐색의 결과 실질적인 부자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고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다른 신화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친탐색의 요소와는 다른 설정이다. 다른 일반신본풀이인 〈초공본풀이〉나 〈이공본풀이〉에서는 본메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한국 본토의 〈주몽신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⁷⁾ 하지만 〈천지왕본풀이〉에

16) 제주도의 본풀이 중에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 중에서는 수직적인 세계관보다는 ‘수평적인 세계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황금산 도단땅’이나 ‘서천 꽃밭’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7) 〈주몽신화〉 등의 부친탐색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서 형제는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상에서도 아버지의 부재를 확인할 뿐이다. 아버지가 본메로 남긴 ‘꼭씨와 박씨’는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 역할을 하였으나, 본메 자체가 서로를 알아보는 신표(信標)로 쓰이지는 못했으며, 부자상봉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면 다른 신화들이 보통 ‘아버지 찾기’를 통해서 아들이 영험한 능력이나 신성성을 획득하는 것에 비해서,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그런 화소들이 약화되었거나 또는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핍을 보충해 줄만한 흔적은 남아 있다. 바로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연을 맺는 계기가 된 ‘꿈’의 내용이다.

대소별왕 도업홀 적, 옥황상제(玉皇上帝) 천지왕(天地王)이웨다. 흐를날은 꿈에 몽(夢)이 베이난 일광(日光) 둘, 월광(月光) 둘, 해, 둘 둘을 내보내니 인간 백성(人間百姓), 낮인 해가 둘이 비추니 뜨거와서 낮의 천명(千名) 좇아 죽게 돼옵고 밤인 둘도 둘을 내보내와 인간 백성 얼고 추워 죽게 될 적의 옥황상제 천지왕, 흐를날은 꿈에 몽(夢)이 오논디 해(日)도 하나 먹어 베고 둘도 하나 들러먹어 베니, 총명왕 총명부인에 천상배필(天上配匹) 못저 지국성 느려 산다.¹⁸⁾

천지왕은 꿈에서 장차 자신의 아들이 월일광도업을 이루어낼 존재가 됨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아버지 찾기’ 결과가 다른 신화에 비해서 다르지만, 이는 후대에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천지왕본풀이>에서 아들 형제들의 신이한 능력은 천지왕의 ‘꿈’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아버지 찾기’ 이후 월일광도

탐라문화연구소, 2000.

노영근, 『신화에서의 친부탐색 화소』, 『가족탐색 서사연구』, 박이정, 2006.

18) 현용준, 앞의 책, 35쪽.

업 등 실제적으로 인간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은 존재는 대별왕과 소별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질서의 부여자’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 천지왕 : 대별왕, 소별왕의 탄생을 주도 → 질서 부여자의 존재를 가능케 함
- 대별왕, 소별왕 : 아버지 찾기(천지왕의 꿈) → 질서 부여자가 됨

한편 <천지왕본풀이>가 <베포도업침>과의 관련 속에서 월일광도업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앞서의 분석에 따르면, 당연히 본풀이의 주인공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풀이의 명칭은 <대·소별왕본풀이>가 아니라 <천지왕본풀이>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현선은 이런 괴리를 두고 결과적으로 이 신화 자체가 불완전하고 소멸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다.¹⁹⁾ 본풀이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대·소별왕의 이야기이지만, 본풀이의 명칭은 천지왕본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한 점이다.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2. 인간세상의 질서 정리

<천지왕본풀이>에서 인간세상의 질서확립은 크게 천지왕이 행한 부분과 대·소별왕이 행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천지왕이 행한 질서확립은 ‘수명장자의 징치’와 ‘월일광도업을 실행할 대·소별왕의 탄생 주도’로 나타나고, 이들 형제들의 그것은 월일광도업, 인세차지경쟁 과정

19) 김현선, 앞의 논문, 249쪽.

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천지왕의 경우를 보자.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결연을 맺기 위해 내려선 후 수명장자의 악행을 알고 이를 징치한다. 벼락장군 벼락사자, 우뢰장군 우뢰사자, 화덕진군 등을 이용해 수명장자의 집안을 일순간에 몰살시킨다. 수명장자의 악행을 징치하는 것은 분명 인간세상의 질서를 나름대로 확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천지왕의 수명장자 징치는 다른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다. 천지왕은 분명 월일광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알고 꿈까지 꾸어 내려왔는데, 이런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수명장자만을 징치하고 있다. 따라서 수명장자를 징치한다는 이 부분의 신화적 문맥은 단순히 악행을 일삼는 인간세상의 악인을 벌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합을 방해하는 ‘방해자의 제거’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총맹부인은 장차 남편이 될 천지왕에게 대접할 저녁거리를 준비해야만 했고, 이를 방해한 것은 수명장자이기 때문이다. 천지왕은 총맹부인과의 순조로운 결합에 휘방을 놓은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자신이 지상에 내려온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나서 합궁일을 받아 자신의 목적인 대별왕과 소별왕을 잉태하게 한다. 그러므로 천지왕은 인간세상의 질서 부여자의 존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하고자 한 셈이다. 그리고 이는 아들 형제가 이루어낼 인간세상의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천지왕은 인간세상의 정리와 관련한 우주적 차원의 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대·소별왕의 탄생을 가능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질서 확립에 조력자가 된다.

반면에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 찾기 이후에 아버지의 꿈의 예시대로 월일광을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천근 활과 백근 살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이들의 신이한 능력은 더욱 증명된다. 해와 달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주적 질서 확립의 하나이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매우 뜨겁거나 추위 살지 못하는 원초적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우주적 질서 확립이 인간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념의 표현이다. 또한 월일광도업은 <베포도업침>에 제시된 우주적 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놓인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열다섯 십오성인 도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형제들은 우주적 차원의 질서를 확립한 것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인간세상의 완전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지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손대고 있다. 앞서 지적한 <천지왕본풀이>의 구연목적인 월일광도업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인세차지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인세차지경쟁은 이승과 저승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주적 질서를 확립할 때는 서로 협력관계였던 형제가 이 대목부터는 서로 경쟁관계로 바뀌게 된다. 이는 아마 하늘에 해와 달이 둘일 수 없듯이, 지상의 이승이나 저승의 담당자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의 소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인세차지경쟁을 위해 이들 형제들이 택하는 방법은 ‘수수께끼 시험’과 ‘꽃 피우기 경쟁’이다.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수수께끼는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얼마나 깨닫는가의 문제이다.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 셈이다. 따라서 이승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꽃 피우기는 누가 이승을 맡는 게 적절한 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꽃 피우기

경쟁은 관련 일반신본풀이인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저승 담당자의 조건이 아니라 이승 담당자의 자격조건으로 주어지는 문제이다.

그런데 인세차지경쟁 과정에서 속임수가 등장한다. 소별왕이 대별왕에 비해서 이승 담당자로서의 조건이 미달하자, 속임수(僞計, trick)를 사용해 이를 뒤바꾸어 놓는다. 소별왕은 속임수를 실행하기 위한 전체 조건으로 ‘잠자기’를 제안했다. 이에 대별왕이 눈을 감자 드디어 속임수가 행해지고 결과는 뒤바뀌게 된다. 이때 ‘잠자기’는 신화적 문맥으로는 사실상 ‘실명(失明)’으로 어둠과 혼란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실명의 화소는 <천지왕본풀이>만이 아니라 다른 본풀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눈이 멀고 장님이 되었다. 즉 천지분간을 못하는 혼란스런 상황이 된 것이며, 부자에서 가난뱅이로 다시 신세가 뒤바뀐다. <문전본풀이>에서도 남선비는 자신의 방탕으로 인해 눈이 멀어 본부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역시 사리분간을 못하는 어둠과 혼란의 상태를 뜻한다. 이는 원초적 질서의 혼란, 뒤바뀜을 뜻한다. 대별왕은 다른 본풀이의 등장인물들처럼 특별히 어리석음이나 방탕을 보이지는 않지만, 엄중한 경쟁의 과정에서 ‘잠자기’를 수락했다는 것은 일종의 방심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면 소별왕은 비록 위계로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경쟁에 임한 것이 된다. 이러한 소별왕의 위계에 대해 허남춘은 위계로 승리를 차지한다는 화소를 탈해와 주몽의 사례에 견주어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²⁰⁾ 반면에 대별왕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지만 소극적인 경쟁 자체

를 보인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소별왕은 이승을,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한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생긴다. 이승과 저승의 ‘법(法)’의 차이로 인한 문제이다. 이승은 혼란스러움이 가득하고, 저승은 맑고 청량한 법이 다스린다. 이승은 살인·역적·도둑이 많고, 남녀간의 분별이 사라져 뒤섞여 있다. 반면에 저승은 질서정연한 공간이다. 이 이승과 저승의 차이는 각각을 다스리는 해당 신의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승은 속임수를 사용한 소별왕의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저승은 속임수를 쓰지 않은 대별왕의 정체성이 역시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선은 인간 사회에 악이 생긴 것은 신들의 다툼에서 이 세상을 차지한 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악은 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²¹⁾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삼승할망본풀이>의 ‘명진국 따님아기’와 ‘동해용왕 따님아기’를 들 수 있다. 이들도 꽃 피우기 경쟁을 통해 각각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승을 차지한 명진국 따님아기는 성품이 좋은 데 비해, 저승을 차지한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성품이 괴팍하다. 꽃 피우기 경쟁에서 지자 명진국 따님아기가 피운 꽃을 꺾어 버리면서 뒤를 쫓아다니며 아기에게 흉험을 주겠노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물론 <천지왕본풀이>와는 이승과 저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는 하나,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신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승과 저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인간의 삶이

20)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27쪽.

21) 김현선, 앞의 논문, 256쪽 참고.

북적대는 현실이 혼란이라고 규정하고, 현실의 삶을 다하고 간 저승은 대신 맑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별왕이 위계를 써서 그렇다는 문맥은 역설적으로 현실사회의 고단함을 신화적 사유로 반영한 것이다. 반면에 후자인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보장되는 이승을 성품이 좋은 명진국 따님아기가 맡고, 어린 생명이 사라져간 저승을 못된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맡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들의 정체성이 각각의 세상의 법을 규정하고, 이런 이승과 저승에 대한 인식은 역으로 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도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구비전승을 통해 신화와 삶이 서로 교차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간세상의 질서를 정립한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주적 차원의 질서 확립에 이어 지상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언급한 것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 세상의 질서 정리 { 우주적 차원의 질서 정리
지상의 질서 정리

- 천지왕 : 수명장자의 악행, 총명부인과 결합하는 전제조건 해결 필요
 - 방해자 제거(부분적인 지상의 질서 확립)
 - 대·소별왕의 탄생 가능(월일광도업이라는 우주적 차원의 질서 확립에 조력)
- 대·소별왕 : 월일광 도업(우주적 차원의 질서정리)
 - 이승과 저승차지 경쟁
 - 이승과 저승 질서 확립(지상의 질서 정리)

한편 이러한 질서의 마련에 대해 신화에서는 ‘법지법(法之法)’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다른 본풀이에서도 이러한 ‘법의 마련’은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신화상으로 ‘어떤 대상이 이리이러하니까 이런 법이 그 이후로 생겨났고, 따라서 현재의 상태는 그것의 결과이다’라는 식의 설명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화상으로 그 연유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관습처럼 받아들였다. 즉 단골들은 이를 삶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법의 마련’이 역시 <천지왕본풀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법지법’의 마련은 현용준 채록본을 중심으로 할 때 ①수명장자와 그의 자식들에 대한 징치 ②윈뿔 없는 용상의 사연 ③ 일월조정 ④이승법, 저승법 차지하기 경쟁-수수께끼 문답 ⑤어지럽고 혼란한 이승법, 맑고 청량한 저승법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신화적 화소이자 기능인 일월조정과 인세차지경쟁까지도 ‘법지법 마련’의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천지왕본풀이>의 ‘법지법’은 이 본풀이가 단순히 평면적인 신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신앙민들의 관념세계와 현실 행동을 지배하던 하나의 세계관이자 불문 규율이었으며, 의문사항의 해결에 있어서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천지왕본풀이>는 창세신화로서 월일광도업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승·저승법을 설명하고 각인시켜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점 역시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라고 할만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의 법의 성격을 신화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그 사실에 바탕해 심방은 이승과 저승을 단골인 주민에게 설명하고 해석해낸다. 심방은 단골과 신 사이의 중간에 끼인 일종의 ‘변호사’

와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풀이에서 범의 마련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해 <베포도업침>과의 상관성을 먼저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야만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글에서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상관성이다.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의 일부로 행해지는 본풀이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베포도업침>이 원래 신화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설명적 교술무가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의례의 제차과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베포도업침>이 원래 신화였는지 처음부터 교술무가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천지자연과 인문사항의 발생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베포도업침>이 있고, 그 중에 ‘월일광도업’과 관련한 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천지왕본풀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소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질서의 부여자(신들의 탄생)’와 ‘인간세상의 질서 정리’라는 큰 관점으로 나누었다. ‘질서의 부여자’라는 틀 속에서는 천지왕과 대소별왕과의 관계를 다루었고, 이때 천지왕의 꿈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후자인 ‘인간세상의 질서 정리’에서는 우주적 차원의 질

서 확립과 지상의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천지왕과 대소별왕 각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신화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리고 다른 일반신본풀이의 사례를 들어 증명하고자 했다. 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소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본풀이에 나타난 ‘법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지법의 마련은 비단 〈천지왕본풀이〉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니고, 〈천지왕본풀이〉 내에서도 법지법의 내용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본풀이의 법지법은 제주인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흔적들이다.

참고문헌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김헌선, 『<베포도업침·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2005, 비교민속학회.
- 노영근, 『신화에서의 친부탐색 화소』, 『가족탐색 서사연구』, 박이정, 2006.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심우성 譯, 『조선 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 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조동일, 『제주도』,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제주도연구』 5집, 제주도연구회, 1988.
-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Abstract

Ritual function and mythical meaning of <Cheonjiwangbonpuri>

Kang, So-jeon*

<Cheonjiwangbonpuri> is myth that is shown contents of creation of the world. This paper has purpose to research ritual function and mythical meaning of <Cheonjiwangbonpuri>.

First, this paper examines ritual function in connection with <Bepodoupchim> of 《Chogamje》. And in this article, I examine mythical meaning through three viewpoints. That is, it is God (Daeyeolwang, sobyeolwang) birth, universal order establishment by God, occupancy and order arrangement of the human world.

Important poi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ing.

First, it is interrelationship of <Bepodoupchim> and <Cheonjiwangbonpuri>. <Bepodoupchim> sings occurrence of the whole world(occurrence of nature and human knowledge, etc). Among them, <Cheonjiwangbonpuri> that sings god's story connected with 'Weolilkwangdoup(arrangement of sun and moon)'. <Cheonjiwangbonpuri> was included to <Bepodoupchim>. Ritual function of <Cheonjiwangbonpuri> can find in connection with <Bepodoupchim>.

Second, this paper tried analysis for contents of <Cheonjiwangbonpuri>. Therefore, this paper divided into 'Adjuster of order(birth of Gods)' and 'Order arrangement of the human world'. On the other hand, Cheonjiwang's dream is important element. Holy ability

*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brothers is foreseen in Cheonjiwang's dream.

Key Words

Cheonjiwangbonpuri, creation of the world, Bepodoupchim, God(Daebyeulwang, sobyeolwang) birth, universal order establishment by God, occupancy and order arrangement of the human world, Weolilkwangdoup, Cheonjiwang's dream

교신 : 강소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사학과
(한국학협동과정)

(E-mail : islandnine@hanmail.net 전화 : 016-695-0532)

최초 투고일 2008. 1. 3

최종 접수일 2008. 1. 14